나를 아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시139:1-6

배경

영화 노잉(Knowing) 설명: 모든 재앙은 숫자로 예고되었다!
1959년, 미국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린 미래의 모습이 타임캡슐에 담긴다. 그로부터 50년 후인 2009년. 타임캡슐 속에서 알 수 없는 숫자들이 가득 쓰인 종이를 발견한 캘럽은 그 종이를 MIT 교수인 아버지에게 전해 준다. 종이에 적힌 숫자들이 지난 50년간 일어났던 재앙을 예고하는 숫자였음을 알게 된 아버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막기 위해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기 시작한다.

이 영화는 '지적설계론'과 '기독교적 종말론'이 섞여 있는 영화입니다. 먼저 영화의 주인공인 코스틀러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MIT의 교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인 아버지와 사이도 좋지 않으며, '기도해준다'는 동생의 말에도 '하지 말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의 존재를 믿지도 않기에 사고로 죽은 아내가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가 우주에 관한 강의를 할 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론'과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되었다고 보는 '진화론' 사이에서 학생의 질문에 그는 진화론의 편을 들어 줍니다.
에스겔서의 그룹들과 바퀴, 지옥, 불로써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 계시록의 모습
핵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가?(Knowing)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우주, 사람, 죄, 믿음, 교회, 교육, 가치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등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잘못된 길로 이끈다. 잘못된 삶, 잘못된 종착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이 세상에서의 바른 삶의 원동력이다. ★★★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촉구하는 시편을 기록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1절: 살핀다(search)는 말은 광석을 캐기 위해 깊이 구멍을 파서 샅샅이 살피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깊은 곳을 꿰뚫어 아신다. 사람은 겉모습을 살피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살핀다. ★★★
아담과 이브(창3:7-24)는 그분을 속이려했으나 실패했다.
알다(know), 이렇게 살핌으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아신다.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우리의 마음, 동기, 과거의 행적,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다 아신다.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기독교 믿음의 시작이다. ★★★
심판자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이다. ★★★
2절: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 우리의 몸동작 하나까지 다 아신다. 몸동작, 움직이는 것, 어디서 무얼 하는지 다 아신다.
수6장의 여리고 정복,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지 말라
7장의 아간, 바빌로니아 산의 좋은 옷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금덩어리
아이 성의 패배, 아간과 그의 온 가족의 패망, 아골 골짜기
내 생각을 이해하신다. 내 계획들을 보신다. 이 시간 무슨 생각을 하며 앉아 있는지 아신다. ★★★
그것도 멀리서 다 아신다. 내 생각과 감정을 아신다.
믿음 생활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도 있다. 내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나를 대한다.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마귀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 주시니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비방함.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들을 책망함(마12:25).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좋은지 나쁜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
3절: 둘러싸다(compass)는 말은 키질하다는 뜻이다. 곡식을 남기고 겨를 버리듯이 사람을 키질해서 그 사람의 중심만을 남기신다. 무가치한 것들은 모두 내버리고 우리의 실체만을 보신다. 행로로 다닐 때와 누울 때 그리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신다.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히4:13
나쁜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롬8:28).
창16:13의 하갈 이야기, 하갈이 사래를 멸시하다가 쫓겨남, 수르의 샘 옆에서 천사가 하갈을 찾아냄. 주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갈의 고백: 나를 보시는 하나님 ★★★
4절: 우리의 말을 아신다. 무엇을 말했는지, 무엇을 뜻했는지 아신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말을 한다. 평생 모으면 큰 도서관을 채울 것이다.
사람은 대부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모두 아신다.
쓸데없는 말, 헛된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해가 된다(마12:36). ★★★
5절: 에워싸다(beset)는 말은 꽉꽉 누른다는 뜻이다. 도시를 정복할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사방에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신다. 그분 앞에서 도망할 길이 없다. 그리고 내 위에 손을 대신다. 도피가 불가능함.
이것은 좋은 뜻으로도 해석된다. 그분께서 내 위에 손을 대시므로 나는 마귀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요일4:4 ★★★
6절: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 이런 지식은 유한한 내 머리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다. 나보다 나에 대해 더 잘 아신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면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11:33)
요1:43-51,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남.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님이다, 라고 말함. 나다나엘의 대답,
예수님의 대답,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의 대답: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구원자로 맞은 적이 있는가? ★★★

결론

1.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
2. 하나님은 모는 것을 아신다. 과거의 모든 행적과 우리의 모든 생각, 죄, 선한 길
3.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한 적이 있는가, 의식하고 사는가?
4. 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나다나엘, ★★★